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73)(10/14/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0 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1-2 절

욥 5:7 -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눅 14:27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후 4:15 -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시 50:14(현대인의 성경) -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1. 당신은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쉬기를 바랍니다(욥 5:7)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인내하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시오(눅 14:27). 늘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누리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위로는 세상의 즐거움들과 육신의 쾌락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은 추악하고 역겨우며 헛된 것들이고, 오로지 영적인 즐거움만은 덕으로부터 생겨나고,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속에 주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되고 바른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가 머지않아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심령의 거짓된 자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위로부터 오는 자유나 확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선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 선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보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보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까닭에, 교만한 자는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좋은 선물들, 그리고 성령을 통한 깊은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을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늘 위로만 받고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넘쳐나고, 온갖 죄악과 타락의 모습들이 난무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다. 성경은 노아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며 죄악된 인간사회를 묘사한다. **창 6: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짐을 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라고 하신 것이다. **마 10: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와 함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인생의 짐을 지고 다양한 삶의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의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기대하고 구하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 십자가는 근심이고 고통이며 우리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일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은총을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다. **눅 14:27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 제자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의 제자는 평안과 위로를 구하면서도,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주님은 삶의 어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과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이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마을에서 나병환자 열 명을 만나 그들을 고쳐 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 그 때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눅 17:11-19).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겸손함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잠 3:34 -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는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게 된다. **고후 4:15 -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물이 된다. **살전 5:16-18 -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 50:14(현대인의 성경) -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삶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구하면서도 고난에 담대하게 맞서며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삶,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더욱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당면한 삶의 문제를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받아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2. 선교 현장에 세워주신 현지인 신학교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음 전파와 목회에 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인생의 환난 중에 신음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